

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0-KR010165

한글 성명: 홍우찬

<기타>

그녀는 기타를 잘 치고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즐겨하던
그녀에게 악기를 못하느 것이 늘 아쉬
웠다. 악기점에서 메블 기타 하나 사고
좋아하느 노래도 하나 정해~~해~~해서 그녀
기타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잘못해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
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
~~한번~~ 생각보다 기타 배우는 ^{관성}이
순조롭지 못했다. ~~잘못~~ 딱딱한 기타 줄을
처음 눌러 ~~보~~ ^보 것도, 악보를 스스로 해서
하느 것도, 독학하던 그녀에게도 다소
비거웠다.
~~한번~~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
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뻔했다. '열습하면
될-거야!'
하지만 열습조차 ^어려웠다.
그녀에게 룸메이트가 있었다. 말이
룸메이트지만 사실상 가장 친한 친구 이
기도 했다. 그들은 팀으로 같이 버스킹

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0-KR010165

한글 성명: 송원찬

을 다녔던 음악으로 만난 인연이다. 룸
 메는 기타를 정말 잘 쳤다. 바쁜 일상
 을 보내고 집에 오면 둘은 항상 음악
 하면서 ^{즐거워} 시간을 보냈다. 친구는 기타로
 반주 하고, 그녀는 노래했다.
 하지만 그녀는 룸메에게 기타를 가
 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상
 하게 될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다. 그녀는 틀
 린 것을 묵시워했다.
 이제 힘든 일상을 끝내고 집에 돌
 아오는데 ^{무엇} 것이 힘들어졌다. 룸메가 옆
 에 있는데 꽤히 기타 들고 앉아있기가
 민망했다. 치지도 않고 있지만 민망했다
 한 음 한 음 ^{거북} 따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간단한 코드 치다가도 백사리가 나는
 실수들.. 초보자에게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아니, 남에게
 보이는 것이 끔찍했다.
 어떻게 할까?

제 1 회 대한민국 성균한글백일장

접수번호: 2020-KR010165

한글 성명: 송운찬

그녀는 학교 끝나고 제일 빨리 집
으로 향했다. 룸메가 들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룸메가 오면 기타를
곧바로 내려놔다.
'오, 요즘 기타 열심히 치는 데? 요즘
연습한 것 하나 품 보여 줘봐!' 룸메는
그녀가 기타를 열심히 연습하는 게 대단
해 보였었다.
'아.. 아냐, 다음에!' 그녀는 너무 긴장
해서 얼굴까지 빨개졌다.
'그래..! 조금 필요하면 얘기하고!'
하지만 그녀는 절대 룸메 앞에서
연습하지 않았다. 같은 말로,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고 기타에
대한 목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음
버스킹 때, 그녀는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공연이 제대로 망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다른 핑계로
합리화를 해봐도 너무 창피하고 숨어버리

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0-KR010165

한글 성명: 송오찬

고 싶었다.

'나는 기타에 재능 없나봐.. 왜 다른
사람들을 몇 개 월만 쳐도 되는데 나
는 안 되지 ..?' 그녀는 한 동안 기타를
만질 수 없었다.

그러면 낯, 음메가 목심한 듯 한 마
다 던졌다.

'야, 나 노래 품 가르쳐 줘, 다음
공연 때 하게.'

그녀는 흥쾌히 동의하고 바로 레슨을
시작했다. 음메의 노래는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호흥법도,
간단한 발성법도 음메에게 저 세상 이
야기 같았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음메의 배에 얹고
발성법부터 하나 하나 설명해줬다. 음메
는 거침없이 노래를 했다. ~~꽤~~ 시원 그리
듣기 좋지 않았지만, 어찌보면 정말 공
연에 서기에 ~~꽤~~ 너무나 경험 없는 실력이
였지만 포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눈에 보

제 1 회 대한민국 성균관글백일장

접수번호: 2020-KR010165

한글 성명: 송우찬

였다.

무엇보다, 그들로 즐겁게 ~~있었다~~ . 고 행복했다.

'고마워, 노래 못 해서 나를 무시하

고 알았는 데.'

그녀는 룸메의 뒷모습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릴 때부터 늘 완벽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는 집착^V속에 살아 온 자신이

그 성취 자체보다 타인의 시선에 대해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완벽

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노력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

해 나 스스로에게 행진 내면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남들의 시

선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던 자

신의 모습들이 영화처럼 눈 앞에서 아

른 거렸다.

'야! 나 기타 좀 가르쳐 주라!'

그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